7 주(2010.10.25):

사르트르의 사르트르의 폭력론 –

「톱니바퀴」를 중심으로

I. 시작하면서

* 후기 사상 : 『변증법적 이성비판 *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*』(CRD)/cf. 전기 사상 : 『존재와 무』(EN);

* 제 2 차 세계대전 : 사르트르의 삶과 사상의 분수령

* 전쟁 전 : 개인주의; 존재론; 집단과 역사와는 상관없는 개인; 글쓰기를 통한 자기 구원, 등 vs. 전쟁 후 : 참여; 역사, 사회적 지평 위에 선 인간; 집단과 역사; 역사의 이해가능성(Intelligibilité)를 탐구; 역사의 법칙;

* '폭력'+'자유'=사르트르 사유의 두 축(軸);

* Raymond Aron: 『폭력의 역사와 변증법』; 사르트르 = '폭력의 사도(司徒)'; Cf. 지라르(René Girard; 1923-)와 비교;

II. 폭력의 기원

II.1. 사르트르의 관점

1) EN 의 관점(존재론적 관점) : '나'와 '타자'와의 존재론적 관계: 시선의 투쟁과 갈등

2) CRD 의 관점(인간학적 관점)

* 인간 = 욕망의 주체;

* EN : 인간 =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

* CRD : 인간 = 땅에서 '비(非)존재(non-être)', 곧 '죽음'의 위험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물질세계로부터 자양분을 채취하면서 생물학적 '욕구(besoin)'를 충족시키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존재;

* 인간 = 지금까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있게끔 하는 '실천의 주체(sujet de la praxis)'이자 하나의 '유기체(有機體; organisme)'로 이해됨;

* 두 가지 특징 : 우연적이고 필연적 사실인 '희소성(稀少性; rareté)'과 '인간들의 다수성(多數性; pluralité des hommes)';

* 이 특징으로 인해 인간은 다른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'반(反)인간(contre-homme)'으로 변모됨; 그리고 대립과 충돌이 생김;

* 희소성에 의해 매개(媒介)된 인간관계는 '폭력'으로 이어질 수 있음; "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주는 박테리아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"

* '희소성'이 갖는 이중의 반대적 역할

- 부정적 역할: 인간들의 관계를 대립과 폭력으로 이끈다는 점;

- 긍정적 역할 : 인간들이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데 뭉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;
- 인간의 역사 =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;
* '실천적 타성태(pratico-inerte)'의 개념
- 문제는 희소성과 투쟁하면서 인간들이 단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쟁과 갈등, 폭력이 만연하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;
- 물질(matière) + 인간의 작업 => 가공된 물질(matière ouvrée) <= 실천의 결과물
- 이 가공된 물질은 희소성에 대항하는 인간들이 행한 실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립, 곧 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해야 할 것;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;
- 물질세계(1 차) + 가공된 물질 = 물질세계(2 차) : 인간들의 실천에 의해 물질세계에 나타난 가공된 물질은 다시 원래의 물질세계와 합쳐져 이들이 거기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자신들의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여건을 형성;
-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었던 가공된 물질이 그들의 새로운 실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'반(反)목적성(contre-finalité)'을 띠고 이들의 실천을 방해하는 '반(反)실천(anti-praxis)'의 적대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=> 실천적 타성태(pratico-inerte) 개념
- ex) 자동차; 공기오염; 전기; 제도, 언어, 역사, 등등;
* 가공된 물질의 반목적성이 초래한 결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음
- 가공된 물질은 이것을 매개로 맺어지는 인간들의 관계를 '집렬체화(sérialisation)'시키고, 또한 이들의 관계를 '갈등'으로 몰고 가며, 마지막에는 이들을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갈라놓으면서 이들의 대립을 조장함;
- 인간관계가 '집렬체화된다'는 것의 의미 = 인간들이 희소성에 대항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갖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, 바로 이 가공된 물질의 역작용(=실천적 타성태)으로 인해 고립되고 분산되어 단순한 '집합(rassemblement)'을 형성하는 자들로 변모됨을 의미;
- 이타성(altérité) = 집렬체화된 인간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'자기(自己)'를 보지만, 그러나 '자기와는 다른(autre) 자기'를 본다는 특징;
- 사르트르는 실천적 타성태로 작용하는 가공된 물질로 인해 나타난 이타성 위에 형성된 인간들의 집합을 '집렬체(série)'라고 부름;
- ex)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
* 버스
- 버스 = 가공된 물질의 하나; 시간과 공간의 희소성을 극복하는 기회를 줌; 행동의 제약;
- 승객들 : 성, 신분, 나이 등에 의해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음; 공통점은 그저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서,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; 승객들 사이의 관계는 이타성에 의해 지배됨; 승객들은 서로 '교환가능함(interchangeable); 다른 승객들의 수의 증가는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가능성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;
- ex) Boat People => 폭력

* 버스의 예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국한됨; 그러나 한 사회 전체가 생산해내는 것 전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'유산계급'과 '무산계급' 관계 => 계급투쟁; 계급들 사이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 무산계급에 속하는 자들의 존재가 근본에서부터 위협을 받을 때 -사르트르는 이러한 상태는 '삶'과 '죽음'이 문제시되는 상태 또는 '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'한 상태로 규정- 이들은 하나로 뭉쳐 자신들을 이런 상태로 빠뜨린 자들과 전면적 투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;

* 집렬체(série) => 융화집단(groupe en fusion) : 결국 폭력을 통해 이룩해냄;

- ex) Bastille 감옥을 공격하는 파리의 성난 군중

II.2. 지라르의 관점

* 인간 = 욕망의 주체; 욕망 = 모방적(mimétique); '욕망의 삼각형(désir triangulaire)'

- 『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*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*』(1961)

- 세르반테스, 스탕달, 프루스트,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작품을 분석;

- 특히 같은 대상을 놓고 S 와 M 이 이른바 '짝패(double)'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의 사이의 관계 => 폭력 발생

III. 폭력의 제압

III.1. 사르트르의 메커니즘

1) 집렬체 => '융화집단(groupe en fusion)'으로 변모하는 과정

* 프랑스 대혁명 때 바스티유(Bastille) 감옥을 향해 돌진해 가는 민중;

* 융화집단의 형성 순간 = '묵시록적(默示錄的)' 순간;

* 방법 : '기존(旣存)의 폭력(violence déjà existante)'을 분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하나의 폭력 -이 폭력은 기존의 폭력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'대항폭력(contre-violence)'(이 대항폭력을 '순수대항폭력(contre-vioence pure)'라고 부르기로 하자- 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;

* 융화집단의 특성

-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'이타성'이 아니라 완벽한 '상호성(réciprocité)'에 의해 지배됨;

- 이 집단에서 '나'는 '나'이면서 또한 '타자'임;

- '우리들(nous)'의 세계;

- '편재성(ubiquité)'의 세계 : '나'와 '타자' 사이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'나'는 '여기에' 있음과 동시에 '저기에' 있게 됨;

-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됨;(Cf. 해방구; 월드컵 덩시의 우리)

- 문제 : 이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동안에만 그 존재이유를 가질 뿐이라는 점;

- 사르트르는 이처럼 '기존의 폭력'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'다른 폭력', 곧 '순수대항폭력'을 제안하고 있음; cf. 불복종, 비폭력, 비저항 운동, 등도 가능;

2) 융화집단 => 서약집단(groupe assermenté)으로

* 반성의 시간 : 융화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열망했던 목표가 실현되는 순간의 환희는 크지만 이 목표가 사라지면서 오는 것은 '반성(反省)'의 시간임; 적(敵)은 멀리 퇴각하고 '우리들'은 죽음을 무릅쓴 싸움에서 지쳐 있음; '우리들'은 융화집단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음; 퇴각한 적은 다시 공격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;

* 이 단계에서 지금 막 형성된 융화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; 이때부터 융화집단은 다시 집렬체로 와해(瓦解)될 위기에 직면하게 됨;

* 하지만 '우리들'이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한 것은 지옥과도 같은 집렬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; 융화집단에 필요한 것은 결국 집렬체로 다시 와해될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조치의 강구;

* '서약(serment)' = 융화집단 구성원들이 이 집단의 영속(永續)을 위해 집단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저당(抵當)잡히는 장치로 정의됨;

* 융화집단 => '서약집단'으로 변모됨;

* 서약은?

- 서약 주체 = '우리들';

- 서약과 동시에 서약자의 자유는 집단에 저당잡혀지며, 따라서 서약자는 집단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오는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게 됨;

- 집단은 서약으로 인해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'강제적 힘(force coercitive)'(cf. Foucault 의 **권력** 개념)을 갖게 됨;

- 처벌권을 갖게 됨;

- 상호적인 처벌권

- 서약 :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남 : ex. 올릭픽; 교황선출; 대통령의 선서; 동배주; 패거리, 등등;

- 이처럼 서약집단 내에서 '동지애(Fraternitté)'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'동지애-공포(Fraternité-Terreur)'의 사용;

- 미연에 큰 폭력을 방지하는 효과 = '방어적 폭력'

3) 서약집단 => '조직화된 집단(groupe organisé)'(cf. 축구팀) => '제도화된 집단(groupe institutionnalisé)'(cf. 국가) 으로 변모;

4) 역사(Histoire) : 계열체 => 융화집단 => 서약집단 => 조직화된 집단 => 제도화된 집단 => 계열체 ... : 계속되는 순환 => 곧, 폭력의 반복적 사용;

5) 글쓰기와의 대립

* 「톱니바퀴 *Engrenage*」라는 시나리오의 두 인물 : 장(Jean)과 뤼시앵(Lucien) 의 갈등

* 장 : "비참함! 폭력! 나는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를 발견했다. 그것은 폭력이었다!"

* 뤼시앵 : “나도 폭력에 저항해서 투쟁하기를 바라네. 하지만 내 방식으로이네. 난 행동하는 인간이 아니네. 난 글을 쓰네. 난 펜으로 폭력을 고발하겠네.”
* 글쓰기가 갖는 대항폭력적 기능; 글쓰기 = 언어폭탄 = mini-praxis= 언어적 대항폭력; cf. 참여문학론의 정수;

III.2. 지라르의 메커니즘

* 『폭력과 성스러움 *La Violence et le sacré*』
* 고대 사회와 같은 집단에서 폭력을 제압하는 메커니즘 = 희생제의(rite sacrificiel)
* 모방적 욕망 => ‘폭력’의 발생 => 폭력의 모방적 특성 => 집단 전체가 위험에 빠짐 => 이 상황에서 집단 전체에 만연해 있는 폭력을 이른바 ‘희생물(victime émissaire)’ 또는 ‘희생양(bouc émissaire)’로 지칭되는 한 마리의 동물 또는 한 명의 인간에게 집중시키고 전이(轉移)시킴; ‘고정농양(固定膿瘍; abcès de fixation)’의 치료법을 사용 => 이 집단은 다시 예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됨 => 주기적으로 희생물을 희생시키는 행사를 반복 => 제의(희생제의);
* 조건 :
- 비밀을 전체 구성원이 몰라야 함;
- 희생물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됨; ‘모방 회오리(emballement mimétique)’에 휩싸이게 됨;
- 희생양 = 어린아이; 문제의 집단에 속하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, 예컨대 전쟁 포로라든가 이방인; 눈에 두드러지는 ‘표식(marque)’을 가지고 있음 = 꼽추, 절름발이 등이 희생양; 왕;
* 희생양 = ‘신성한(sacré)’ 성격을 띠게 됨; 왜냐하면 이 희생양 덕택에 이 집단을 위협하던 폭력이 진정되었기 때문;
* ‘만인의 일인에 대한 폭력’ = 희생양에 대해 가해지는 집단적 박해 = ‘초석적 폭력(violence fondatrice)’
* 치료적 기능과 방어적 기능
* 『세상이 창건된 후 감춰진 두 가지 사실』, 『희생양』, 『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』 등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희생제의가 갖는 의미를 자세히 검토함;
* 희생제의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난(受難) 분석;
- 희생양이 무죄라는 사실을 감춤;
- 예수의 수난사 = 희생자의 시각으로 씌어짐 = 가해자들의 박해의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있음;
- 다른 대안 제시 = 용서와 사랑

IV. 마치면서

* 인류 전체의 제 1 의 적 - 폭력;

* 폭력과의 전쟁;